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현대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음 7월 13일) 제211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 태풍 영향권 비바람 피해 우려

서해안쪽 많은 비 내릴 듯  
송 지사, 정읍 배수펌프장 등  
침수우려지역 현장 점검

제19호 태풍 '솔릭'이 전북도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2일 과거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침수 우려지역 정읍시 배수펌프장을 방문하고 배수펌프 작동상태 점검과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련기사8면】

현장점검은 23~24일경 전북을 관통하는 태풍의 강도가 엄청 날 것으로 전망되고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이번에 방문한 2개 시설 모두 저지대 주택가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집중 호우 발생 시 배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지 여부를 송지사가 직접 점검했다.

송 지사는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강력한 태풍인 만큼 우리도 지역의 큰 피해가 염려된다"며 현장점검에 참여한 도·시군 관계자에게 "배수펌프장 역할 강화는 물론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한 재해사각지대까지 특별 관리를 주문"하는 등 "최우선적으로 도민의 인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1일부터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여 긴장감 있는 태풍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남북 이산가족 마지막 인사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인 22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을 마친 후 버스에 오른 남측 이금섬(92) 할머니가 북측 아들 리상철(71) 씨와 마지막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서 동메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중국전 41-45로 패배

한국 펜싱 에페 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을 놓쳤다.

박상영(25·울산광역시청), 정진선(34·화성시청), 박경두(34·해남군청), 권영준(31·익산시청)으로 구성된 에페 대표팀은 22일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중국에 41-45로 져 동메달에 그쳤다.

이로써 아시안게임 에페 단체전 4연패도 무산됐다.

한국 남자 에페는 단체전에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부터 3연속 우승



22일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남자 펜싱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중국에게 진 후 아쉬워하고 있는 펜싱 대표팀.

을 차지했다.박상영은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에서도 금메달 획득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일본을 45-25로 대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 상대는 라이벌 중국이다. /뉴스

##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내달 2일 개최... 세계 최정상 비보이들 '온고을 배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에서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펼치는 비보이 배틀이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9월 2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국내 최고 비보이들의 한바탕 축제인 '제12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연다. (관련사진 4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30여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후 1시 비공개 예선전에 이어, 오후 6시부터 개회식과 본선 배틀이 이어진다.

본선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우승상금을 놓고 격돌하며, 우승 팀에게 영광의 우승상패와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본선대회 수상자에게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대회의 위상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유명 크루 30여팀 참가

강화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유명 비보이 3명(미국의 RUEEN, 우크라이나의 UZEE, 라스트포원의 STYLE M)이 심판을 맡아 진행하며, 비보이대회 전문 MC인 박재민이 사회를 맡는다. 또, 전 세계 비보이 현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미국의 DJ인 SKEME RICHARDS가 전주비보이그랑프리의 DJ로 비보이 및 관객들과 함께 첫 호흡을 맞추게 된다.

또한, 올해 비보이그랑프리에서는 관객들을 위한 화려하고 흥겨운 특별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오프닝 공연에는 지난 2005년 세계최고의 비보이 크루를 가리는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에 비보이 돌풍을 일으킨 '다스트 포원'이 참여하며, 합작가수 '산이와 쇼미더머니'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가수 '한해', 레이저퍼포먼스의 최강팀인 PPD가 참가해 전주 비보이그랑프리를 찾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본선대회장 입장은 배부처에서 받은 좌석교환권을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매표소에서 지정좌석권으로 교환하면 되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선착순 1,700명만 입장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2007년 첫 선을 보인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전국 유일의 팀 배틀 형식의 전국비보이배틀대회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비보이 문화의 역사를 다시 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 공동위원장인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지난 11년간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비보이 대회이자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에 젊고 뜨거운 활기를 불어넣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면서 "전주는 청소년들이 맘껏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과 역동적인 젊음이 공존하는 도시'로 가고자 한다. 전주 비보이그랑프리가 도시 전체에 젊음의 기운을 불어넣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전주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매일 INDEX

16면 -무주 반딧불축제 내달 1일 개최

제12회 **곰소갯갈 발효축제**

2018. 9. 14(금) ~ 9. 16(일)

부안군 진서면 곰소다용도 부지 일원 문의 : 063.583.4490

주최 : 곰소갯갈발효축제 추진위원회 주관 : 부안군 후원 : 부안수협 남부안농협 곰소갯갈협회